

2024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전문 예술인 및 단체 공개모집 심사총평

유명 가수가 외국에서 버스킹을 하며 관객과 호흡하는 모습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우리도 버스킹이라는 문화가 일상생활 속 또 다른 예술로 익숙해져 있다.

서양권 문화에서는 일찍이 길거리 예술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매김 했는데 시민 일상에서의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는 주제로 남동문화재단에서 선발한 전문예술인을 지원하여 인천 지역 곳곳에서 길거리 공연을 시민과 나누는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못했었던 많은 예술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심사위원단은 서류심사와 영상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의 전문 예술인 및 단체를 선발했다. 영상심사의 경우 짧은 5분 이내의 영상에 담긴 참가자들의 실력은 생각보다 우수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으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거리에서 쉽게 접하게 할 수 있는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는 팀을 우선으로 선발 하게 되었다.

특히 글로리어스, 아침의 트리오, 서주연 밴드, La Petite France Quartet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는데, 각 팀은 본인들의 특성에 맞게 직접 작곡, 편곡,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예술인으로 앞으로의 성장과 행보가 기대되는 팀들이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는 전문예술인을 위한 열린 플랫폼으로서 풍성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들을 선보이기 위한 문화재단의 방향성은 매우 존중하며, 응원하는 바이다.

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접하고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공공이 가진 유익함이 아닐까 생각하며, 인천 남동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2024. 3. 20.

2024 찾아가는 문화공연 심사위원 일동